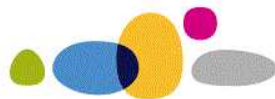

2022년 주요 업무계획

“ 새로운 일상, 문화예술은 더욱 풍요롭게 ”

2022. 1.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I . 2021년 성과와 한계	1
II . 2022년 업무추진 환경 및 방향	5
III . 주요업무 추진 계획	11
1. [창작터전은 단단히]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 토대 구축	11
2. [예술미래는 든든하게] 문화예술 내일, 문화예술 내 일	17
3. [우리마음은 넉넉히] 문화예술 향유와 가치 확산	21
4. [기관운영은 탄탄하게] 현장성과 자율성 기반 재도약	24
IV . 현안 과제	26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26
2. 예술 기록 수집 및 보존 법제화	28
3. 아르코 창작 공간 시설 노후화	29
[참고] 일반현황	0

I . 2021년 성과와 한계

1 성과

- ◇ 문체부 - 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21.3.10)
- ◇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 ◇ 2020 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
 - 문체부 공공기관 평가 대상 중 전체 1위
- ◇ 2020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8년 연속 '우수'
- ◇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21.9.27)
 - '18~'21 공공기관 SNS활용 평가 4년 연속 수상

□ 문체부 - 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체결

-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 정책의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문체부-예술위가 자율적·독립적 관계임을 선언
 - 위원회 전환의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문화예술의 지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을 선언하여 예술현장의 신뢰 회복 기반 마련
 - * [주요 논의 경과] ('18.10~12월) 예술위 자율성·독립성 제고 방안 연구 → ('19.1~4월) 자율운영협약 협의 → ('19.4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19.5월) 협약체결 취소 및 이견 조율, 논의 중단
 - (내용) ①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②예술위의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의무 ③기금 재원확보 노력과 공정 분배 여건 조성 ④법령에 근거한 문예기금 운용 ⑤헌법 정신을 준수



□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 (공연예술 인력지원) 공연예술단체 폐업 및 예술인력의 실업을 방지하여, 공연예술계 활력을 위한 사업 추진(추경, 451억원)

'20년도 3차 추경으로 개시된 사업으로 사업으로 3,000명 참여자 대상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필요성에 93.7%가 긍정 응답 ('20년 일반회계 288억원)

- '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 계획을 수립한 공연예술단체에 3,500여명 5개월간, 2,000명 3개월 간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 1차 추경 336억, 2차 추경 115억
-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위축된 창작환경과 국민들이 겪은 상실에 대해 예술로 기록하고 향유하여 사회적 치유와 회복 도모(45억원)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융복합 분야의 개인/단체 단위 프로젝트 지원
- (위드 코로나 문화예술 치유) 단계별 일상회복에 맞춰, 국민 문화예술 활동을 재개하는 상징적 행사 개최(1억원)
- (공연예술 활성화) 침체된 공연예술계 피해 감소 및 시장 활성화
 - (민간공연장활성화 지원) 기초 공연예술 전용공간(소극장) 및 등록 공연장의 순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확대(기금변경, 50억원)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대규모 공연예술 축제 지원 확대(추경, 30억원)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 추진

- (기초예술다양성 증진)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장르와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예술창작활동 지원(10억)
 -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창작·향유 기반 마련(5억)
 - 장르의 경계를 초월하는 복합·실험적 예술 지원(5억)

- (비대면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비대면 예술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설계·구축(10억)
 - 유관기관 교육협의체 구성을 통한 예술인력 교육 통합 정보제공
- (예술기록물 수집 및 개방) 디지털 콘텐츠 확대 및 언택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술기록원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추진(7억)

□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1인당 지원금 인상 및 지원인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 1인당 지원금 : ('20년) 9만원 → ('21년) 10만원
 - 지원 인원 : ('20년) 175만명 → ('21년) 197만명
 - * 추경으로 인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인원 확대 포함
- (코로나19 대응 추가 지원)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소비 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돕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및 내수 진작(추경, 141억원)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소외계층 대폭 증가로, 기존 지원 인원 177만명에서 197만명으로 20만명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개선)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8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전체 31개 공익사업 중 2위)
 - (사용자 서비스 개선) 비대면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취약계층 전용 서비스 개발, 비대면 문화생활 향유 가맹점 발굴 등
 - (성과) '11~'2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등급 우수
 - * 2016년, 2017년 평가대상 제외(복권기금으로 미추진)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사업체계 혁신과 지원제도 수용도 강화

- (지원제도 정교화)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로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지원심의제도 마련 필요
 - 동료평가제도 등 예술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의 장을 통해 논의된 지원심의 제도로 예술현장의 신뢰 회복
- (지원사업의 개념 전환) 새로운 환경 속 예술 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 구조 혁신 필요
 - 지원의 연속성과 성장 기간을 보장하는 다년간 지원사업
 - 예술 영역 확장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지원 사업 방향성 구체화 및 지원 구조 다각화를 통한 기술 융합 창작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구조 마련 필요

- 모금제도 폐지 이후 기금 자체수입 감소, 지속적 사업규모 확대로 고갈 위기로 인해 현재 국고 및 타 기금 전입으로 편성
 - 타 기금(체육·관광·복권) 및 일반회계 전입으로 문예기금 전입금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관광·체육업계 타격으로 인한 전입금 감소
 - * 관광기금 ('20) 500억원 → ('21) 미전입 / 체육기금 ('20) 1,000억원 → ('21) 970억원
 -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의 지속적 확대에 의한 재정수지 악화 및 수익구조의 취약성 지적
 -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연례적으로 전입금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

Ⅱ. 2022년 업무추진 환경 및 방향

1 업무 추진 환경

외부 환경 분석

□ 법·제도 변화

- (자율성·독립성)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통한 합의제 기반 위원회로의 전환 취지 실현과 팔길이의 원칙 재확인
 - 문체부-예술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21.3.10)
- (예술생태계 공정 환경) 예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시행 ('20.12.10)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8.31)
- (새 정부 출현) 새로운 국정과제 및 예술정책 등장
 - 제20대 대통령 선거('22.3.9)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22.6.1)
-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 진행


□ 경제 환경 변화

- (경기 점진적 회복 전망) 백신 접종률 확대와 일상 회복 준비를 통한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목표 전망
 - OCED '21년 9월 중간 경제 전망 수정치 지난 5월 비해 상향 발표
 - * ('21.6월) 3.8% → ('21.9월) 4.0%, 0.2%p 상향, '22년 2.9%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 지속) 대면·현장성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 행사·전시·교육 등 취소와 연기 지속

- 코로나로 인한 '20~'21.9월 문화예술분야 피해액 약 7,200억 추산
 - * 2020년 1~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3,291억원, 시각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1,201억원으로 추정
 - * 2021년 1~9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으로 공연예술분야가 입은 매출액 피해는 2,737억원으로 추정되며,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매출액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2021년 KCTI 예술동향 분석, 2021년 9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코로나 휴업·폐업 전체의 45.8%, 관람객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

<p>'45.8% 휴업 또는 폐업...심폐 소생술 필요한 공연예술계'</p> <p>정말한 기자 일력_2021-09-02 08:39</p> <p> 공연건수, 전년비 65.0% ↓...문예부, 재가지원 자금 편도 250억원 조성</p> <p>공유하기</p> 	<p>공연예술기관의 공연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공연건수는 65.0% △공연시설의 공연횟수는 68.4% △공연단체의 기획 공연횟수는 60.5% △공연단체의 초청 공연횟수는 65.9% △공연시설의 공연장 가동일수는 69.1%로 심각한 감소 - 아주경제(21.11.2)</p>
---	--

○ (문예기금 수입구조 악화)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와 문화 예술·관광·체육 전 분야에 걸친 피해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투입 확대 및 문예기금 재원 법정화 난항

- 관광 업계 피해 지속으로 관광기금 재원 축소에 따른 문예기금으로의 출연 0원('21~'22년) 및 경륜경정 전입 중단('22년)

□ 사회 환경 변화

○ (문화예술 우호 여론 조성) 예술·영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류의 대성공으로 인한 문화예술에 대한 우호적 국민 여론 확산

- 이남치,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한국 문화예술·콘텐츠의 계속되는 국제 무대 성공

○ (MZ세대) 밀레니얼·Z세대의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 급상승

- (공정성) 기회의 공정성과 가치 추구의 진정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

- * 가치소비, 그린슈머, 선한 영향력 등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
- (모바일·디지털 네이티브)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모바일 기기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활용
 - * (밀레니얼세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Z세대) 1996~2010년 출생
- (비대면 정착) 이제는 일상이 된, 비대면(언택트) 기반의 사회활동과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방식
 - 온라인 및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대인관계 형성
 - * 네이버 '제페토', 글로벌 이용자 2억명 돌파, 이용자의 80%는 10대
 - 전통적 방송(공중파·케이블)의 쇠퇴와 1인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수요 급증
 - * 향후 기술(Technology)과 융합된 예술 활동을 할 의향 72.2% 긍정적 응답 : 매우있음(40.6%), 약간 있음(31.6%), 보통(16.6%)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 설문조사(2021)]

□ 기술 환경 변화

- 코로나 계기 기술혁신으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영속화 될 예상
- ①광범위한 온라인 전이(Transformation)로 문화예술의 온라인화 증가 및 고수준의 실감기술 구현 ②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체험의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문화예술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온라인영역으로 전이, ③실제를 뛰어넘는 경험을 주는 초실재화(Super Presence)적인 문화예술적 표현이나 실험이 증가, ④콘텐츠와 문화예술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 질 것

분야	구분	기존	언택트 현상	언택트 사회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언택트 혁명 (4차 산업혁명 도달)
	시기	프리 코로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방향	과거	2002년	2021 이후	중장기 미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문화예술 경험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경험, 소비 단절 발생 ▪ 온라인 문화예술 체험 실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온라인화 증가 ▪ 실재감을 위한 고수준 실감기술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영역으로 문화예술 광범위 전이 ▪ 초실재화를 통한 문화예술 표현, 실험 증가

* 박찬욱 외, 코로나19 콘텐츠산업 영향 및 대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 코로나로 부각된 디지털 소외 계층

- 코로나 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하는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IT 기기 사용에 능숙치 못한 노년층이 더욱 소외받으며 디지털 격차가 심화
 - *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 →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예술 환경 변화

○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 위축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순수예술분야) 감소 : ('19) 81.8% → ('20) 60.5%
 - * 2020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 NFT(Non Fungible Token)을 바탕으로 한 미술 시장의 급속한 성장

- 블록체인 기술 발전, MZ세대의 미술 수요층 저변 확대, 이견희 컬렉션 사회 환원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 증대, 비과세(취등록세 및 6천만원 이하 양도세 면제) 등으로 미술품 거래 시장 성장
 - * 글로벌 NFT 거래 총액 : ('17) 3,090만 달러 → ('21.상반기) 12억 6,320달러

○ 문화예술분야의 브이노믹스(V-nomics) 대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의 소비·향유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
 - * (홈루텐스)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놓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등장
- 비대면 콘텐츠의 부상에 대한 비관론적 시각도 존재
 - * 오프라인 예술의 현장성 퇴색, 몰입이 어렵고, 오프라인 관람 감소 가능성, 영세한 예술단체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제작 비용, 디지털 격차의 심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악화

내부 여건 분석

□ [새로운 동력] 기관 성장 동력 확충

- 위원장 호선제 기반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위원장 호선제 도입 및 위원 임기 3년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 * 제8기 위원회 구성('22.5월) 시기를 고려한 위원장 임기 연장('21.10월 종료 예정)으로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장기 전략체계 실행동력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1. 2월)
 - * (전략사업본부 신설) 기관 전략사업을 집중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전략사업본부 신설
 - * (예술인력본부 격상) 예술인력육성, 일자리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술인력개발원을 본부급으로 격상
 - * (창작본부 통합)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일원화를 위하여 문학시각예술본부와 공연예술본부를 통합한 예술창작본부 신설
- 소위원회 운영 체계 혁신
 - 현장소통, 정책혁신 등 기능형 상설소위원회와 의제 중심의 TF형 소위원회 구성

□ [예산 증액] 변화하는 환경 대응을 위한 예산 확충 *정부안 기준

- (균형적 창작을 위한 지원확대) ▲문학창작육성 ('21) 30억 → ('22) 45억, ▲시각창작육성 ('21) 32억 → ('22) 48억
- (미래사회 대응) ▲예술과기술융합 창작지원 ('21) 27.5억 → ('22) 33.5억, ▲빅데이터 예술 서비스 개발 ('21) 10억(신규),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지원 ('21) 10억 → ('22) 20억, ▲예술기록디지털서비스 ('21) 3억 → ('22) 8억
- (국정과제 대응과 일자리 창출) ▲통합문화이용권 ('21) 1,261억 → ('22) 1,881억, ▲무대예술전문교육 ('21) 6억 → ('22) 45억, ▲아르코 청년예술가지원 ('21) 10억 → ('22) 30억

2 전략 및 추진과제

설립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 영유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2022	“ 새로운 일상, 문화예술은 더욱 풍요롭게 ”

① [창작터전은 단단히]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 토대 구축

1. (창작사업) 예술계 성장형 창작 지원 사업 체계 구현
2. (창작공간)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창작 공간 운영

② [예술미래는 든든하게] 문화예술 내일, 문화예술 내 일

1. (기술융합) 새로운 예술 탄생 지지
2. (일자리)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확대

③ [우리마음은 넉넉히] 문화예술 향유와 가치 확산

1. (문화향유) 취약계층 문화향유 대상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2. (가치확산)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가치 제고와 보존

④ [기관운영은 탄탄하게] 현장성과 자율성 기반 재도약

1. (현장참여) 예술계 소통 활성화로 기관 운영의 현장성 강화
2. (역량강화) 설립 50주년(23년) 준비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창작터전은 단단히]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 토대 구축

1-1. [창작사업] 예술계 성장형 창작 지원 사업 체계 구현

□ 예술창작지원 규모 확장 (+ 65억원)

- (문학·시각예술 31억원 증액)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기존 사업 규모를 유지했던 문학 및 시각예술 창작지원 사업비 예산 대폭 증액
- (공연예술 34억원 증액) 지역공연예술 생태계 포용 및 지원확대를 위한 공연예술창작지원 34억원 증액

구분	2021	2022	증액 규모
문학창작육성	29.9억원	45.3억원	15.4억원 ↑ (51.5% 증)
시각예술창작육성	31.9억원	47.7억원	15.6억원 ↑ (50.1% 증)
대한민국공연예술제	69.9억원	85.5억원	16억원 ↑ (22.9% 증)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54.9억원	73.2억원	18억 ↑ (33.4% 증)

□ 규모 확장에 따른 개별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단가 상향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80명→280명) 수혜인원 확대 및 문학 개인 창작자 수요 중심의 지원 체계 개편

2021
[발간지원 80명] 미발표 우수작품에 대한 작품집 발간 지원

2022
① [발간지원 80명] 작품집 완성 원고에 대한 발간비용 집중지원
② [발표지원 200명] 연중 미발표원고에 대한 원고료 및 온라인 발표 기회 지원

- (시각예술지원사업 평균 지원 단가 39.3% 상향)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창작 환경 여건 마련

구분	2021	
	규모	단가
사전연구	4천만원	최대 7백만원
우수전시	4억원	최대 8천만원
비평	7천만원	최대 1천만원

2022		증가율	
규모	지원단가	규모	단가
1억원	최대 1천만원	150%	42.9%
8억원	최대 1억원	200%	25%
1억원	최대 1.5천만원	42.9%	50%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보조금 정액 및 연속 지원 도입) 지원금 정액제를 통해 예술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유형을 세분화 하면서 연속 지원을 도입하여 안정적 창작 활동 지속 가능

구분	2019~2021	2022~2024
지원규모	2천~2억원	1억원 또는 2억원 중 선택 신청
지원유형	설립 5년 기준 중견/유망 단체로 구분하여 지원	기존단체 / 수도권단체 / 비수도권단체



□ 장기적인 관점의 다년간 지원 체계 적용 사업 확대

- 공연예술 분야 외 문학, 시각의 창작 기반 성격의 사업에도 적용
 - 창작의 기반 및 여건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다년 지원 체계를 적용하여 안정성 강화

2021	2022
중장기 창작지원 3년	중장기 창작지원 3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장르대표) 3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장르대표) 3년
	문예지발간지원 3년
	문학집필공간지원 3년
	시각예술공간지원 2년

□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 운영 및 체계 재편

- (문학) 온라인 기반 문학 플랫폼 '문학광장' 전면 개편 및 문학 가치 소통 공유 축제 '문학주간'의 참여 주체 다양화

	온라인 문학 소통 공간 활성화 www.munjang.or.kr
	디지털 환경의 발전 및 비대면 방식의 작품 발표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05년 서비스 시작 이후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채널 활용 확대
	문학 가치 소통 및 공유로 문학계 활력 제고 '문학주간'
	위드코로나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운영 및 문학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 프로그램 협력 강화로 범 문학 분야 대표 축제로써 위축된 문학계 활력 부여

○ (시각예술) 미술계 ‘참여 주체별’ 지원 체계 확립

- 전시 활성화를 통한 작가 간접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예술가 경력주기를 고려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 직접 지원 사업 신설

단계	창작	전시	비평	매개
참여주체	작가	기획자	이론가	전시공간
2021	-	사전전시연구 우수전시	비평지원	공간지원
2022	중견작가 프로모션 (신설)	사전전시연구 우수전시	비평지원	공간지원

○ (공연예술) 사전제작활동지원 사업 신설을 통한 ‘과정 지원’ 확대와 정교화 및 음악분야 기획 공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유형 개선

- 초연 제작 및 발표지원에 집중된 창작산실사업 내 지원 유형을 전문가 자문 및 문제 진단을 통해 과정 지원 유형 확대

* 전문가 자문 회의 : '21.8~9월 / 25회 추진

과정 지원	2021	2022	
	창작실험활동지원 6억	창작실험활동지원 3억원	5백만원 정액지원 아이디어개발 및 리서치
		신작 기획 및 제작 준비 (프리프로덕션)	

- 음악 분야 오케스트라·작곡가 중심의 지원 사업을 실험음악 등 지원 영역 확대 및 기획 공연 활성화를 위해 ‘창작산실’ 체계로 개편

* 경쟁을 통한 단계별 제작 지원 체계인 창작산실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우수 작품이 사장되지 않고 레퍼토리로의 성장과 관객 저변 확대 기대

□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비평 사업 체계 정비

○ 분야별 특성에 따라 비평 활성화를 위한 적정 규모 및 지원 대상자 설정

구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규모	2021	개인 2백~5백만원 단체 5백~2천만원	프로젝트당 4백~1천만원	프로젝트별 최대 25천만원 개인비평가 2백만원
	2022	1인당 5백만원 정액	프로젝트당 5백~1.5천만원	프로젝트별 최대 25천만원 개인비평가 3백만원 정액
지원 대상	2021	단체 및 개인 (8개 프로젝트)	비평활동, 비평서출판, 비행간행물발간	비평전문매체,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2022	개인 20명	비평활동, 비평행사, 출판 및 간행물발간	개인비평활동지원

□ 기초예술 분야의 활동 영역 확장 및 다양성 제고

- (국제예술 교류)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제예술 교류 방식 변화를 반영한 지원 사업 운영
 -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대면 교류 사업의 취소·연기·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한 비대면 교류 방식의 대안사업(Plan B) 구성
 - 한류 확산 기조에 힘입어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외 페스티벌 및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예술가 및 단체 지원 확대

구분	2021	2022
국제교류지원	최대 6천만원	최대 8천만원
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제작)	최대 3천만원	최대 5천만원

- (국제예술공동기금)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양자 간 교류에서 다자 간 교류까지 협력체계를 확장 및 신규 파트너 발굴

* ('22년 상반기) 한국-네덜란드 협업 공모 추진 및 2023년 파트너 기관을 양자·다자 간 교류 형태 확장 형식으로 발굴하여 장기적 관점의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 신규 파트너 기관(안) : 캐나다예술위원회, EUNIC 유럽연합국가문화원

- (기초예술다양성 증진) 예술 생태계 중 다양성 확보 및 미래의 예술 창작·향유 세대 아동·청소년 특화 예술활동 지원 강화
 - (새로운 창작 경향 포착) 다원예술 포럼 개최 확대를 통해 선정단체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새로운 창작 경향에 대한 담론 형성
- * ('21) 다원예술포럼 1회 개최 → ('22) 다원예술포럼 권역별 개최
-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확대 5억원^{'21}→15억원^{'22}) '21년도 지원을 통해 발굴된 신작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레파토리 지원 단계 신설

□ 안정적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용자 239억원 지원

-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편이성 제고
 - 예술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안내 지원 및 전산 고도화 진행
 - 수혜자 수도권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시범 도입한 지역 거점 예술인 금융 상담 창구를 용자 시행 은행과 연계하여 운영 정례화

□ 창작 지원 사업의 포용력 확대

- 지원 사업의 신규 진입자 및 비수도권 지역 배려 정책 도입 및 확대
 - (신규진입) 문학나눔도서보급 사업의 '생애첫발간도서' 지원 유형 신설 및 전체 선정종수의 10% 유지
 - (비수도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비수도권 별도 지원 트랙 신설 및 민간공연장활성화사업 지역문화재단 연계 수행
- 안전하고 공정한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확충
 - (경력단절 예방)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의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돌봄 비용 보조금 편성 허용 지속 유지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자체 워크숍 비용 보조금 편성 가능 항목 신설
 -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안착)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보조 사업 수행 시 고용 보험 가입 의무화
 - (배리어프리 예산 편성)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 작품의 접근성 향상 및 이동 슬로프 설치 등 시설 접근성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편성 항목으로 확대

□ 지원 사업 신청의 편의성과 수용도 제고

- 정시 공모를 1~2차로 나누고 별도공모 최소화 및 사전공지를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구분	2021
정시공모	정시공모 (10월 /1회)
별도공모	21개 사업

2022
정시공모 1차 (10월) · 정시공모 2차 (12월)
9개 사업

- 신청 시 자율 신청 자격 검증 제도 도입으로 신청 오류 최소화
 - * 미정산, 중복신청, 지원신청 부적격자 점검 항목 신설
- 필수 서류 제출 전자 동의를 통해 간소화
 - * (기존) 별도 한글 파일로 시스템에 업로드 → 시스템 내 양식 탑재하여 전자동의로 대체
 - ** (필수서류) 청렴이행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신청 확인서
- 공모 접수 결과 사전 안내 및 심의 과정 공개 확대로 투명성 강화
 - * 정시공모 접수 개요, 사업별 접수 현황, 신청자 유형별 접수 현황, 심의위원 구성 방식 등

1-2. 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창작공간 운영

□ 공연예술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극장 운영

- (파트너십 강화)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대관 공모 기획 및 선정
 - 전략적 대관 선정을 통해 선별된 양질의 연계 프로그램 기획
 - * 정기대관 조기 추진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21.10월 공고 및 '21.12월 발표)
 - ** 대관 단체-극장 간 협력을 통한 관객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 (창작극 활성화) 신진 작가의 창작극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봄 작가, 겨울무대> 추진 *신진작가에게 다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연극계 정착 기반 마련
- (온라인에서 만나는 극장) 다채로운 공연 작품 및 공연 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누리집 정보 기록 플랫폼 역할 강화
 - * <아르코댄스필름 AtoZ>, <팔로우스팟>, <대학로 다락방> 등 온라인 채널 운영 및 콘텐츠 활성화
- (모두의 극장) 배리어프리 공연 서비스를 위한 협력 지원 및 작품 개발
 - *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무용 작품의 음성 해설 등 초기 제작 단계에서부터 장기적 안목으로 배리어프리를 염두에 둔 작품 개발 발굴 및 지원으로 25회 운영 예정

□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미술관 운영

- (미래의 미술관)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협업 종합 프로그램 신규 추진
 - 아르코미술관, 국내외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및 주요 미술단체 협업으로 연중 온·오프라인 교류 프로그램과 전시, 공공프로그램 추진
 - * 국제 심포지엄, 큐레이터 워크숍, 국제교류 및 협업 기획 전시('22. 8~12월 예정) 디지털공동아카이브 구축, 미술인 및 관객참여프로그램 운영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시각예술계 주요 담론을 창출하는 기획전시 및 연구 프로그램 추진
 - * 이동, 공동체, 글로컬, 블록체인 등 시각예술계 주요 이슈를 공공의 측면에서 접근, 창작과 연구 매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 주제기획전(2~4월), 기획초대전(5~7월),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협업 프로그램(9~12월)

□ 안전한 대학로 창작 공간 운영

- 개관 후 40년 이상 노후된 아르코예술극장 및 미술관 시설 현대화 및 정전 대비 전기 선로 이중화 공사로 안전성 제고

2-1. 기술 활용 새로운 예술 탄생 지지

□ 예술-기술 융합 창작 지원 방식 다각화 및 협업 기반 강화

- (지원규모 확대) 79건, 27.5억원^{'21} → 105건, 33.5억원^{'22} (민간경상보조금)
- (과정지원 신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술-기술 융합 협업 및 과정 활동(연구모임, 교육/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유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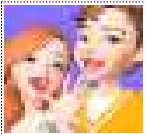
단계별 지원	(과정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기존(2021)	-	아이디어 기획구현	기술융합 창제작	우수작품 후속지원
개선(2022)	자유기획형 활동지원 <신설>	아이디어 기획구현	기술융합 창제작	우수작품 후속지원

- (협업기반 강화) 아트앤테크 플랫폼 운영 고도화로 예술 현장 기술 접근성 제고 및 협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아트앤테크 플랫폼 : arko.or.kr/artntech, 예술가-기술가 매칭 기능 제공

□ 미래 창작 환경 준비를 위한 메타버스 확장 지원 사업 신설

메타버스(Metaverse)



3D 기반 아바타가 대리 현실과 유사 경험 및 경제활동 등 일상을 영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가속화, MZ세대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을 현실에 가깝게 경험·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각광

- 5G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온라인을 넘어선 새로운 가상 융합 환경에서의 예술 창작 및 발표, 관객 소통 예술 프로젝트 지원 (17억, 일반회계)
 - 기초예술 전 장르 대상 문화예술 유통 및 매개자인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이 예술인과 협업하는 방식을 추진
 - * 첨단 체험 기술 활용에 대한 예술인 장벽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예술인과 기술자를 매개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창작 활성화 지원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확대**

- 비대면 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창작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
 -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확대 (49.3억원^{'21} → 56.2억원^{'22}, 일반회계)
 - 조기 공모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창작 기간 확보

구분		기존(2021)	개선(2022)
예산 증액으로 지원규모 확대	건당 지원액	6.8백만원	7백만원
	지원건수	660건	750건
조기 공모를 통한 창작기간 확대		5개월	7개월

- 누리집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술인 및 일반인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서비스 강화

* 누리집 : artson.arko.or.kr

□ **데이터를 활용 다각적 측면의 기초예술 성장 기반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예술 서비스 개발 (신규)**

- (빅데이터 기반 지원 사업 신설) 빅데이터를 활용 창작, 창업, 수요자 분석,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초예술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설 (10억원)

- ① (비즈니스 발굴)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빅데이터 기술 기반 융합 서비스 신규 발굴 지원 사업 추진 ('22년 4건 사업화 목표)
- ② (빅데이터 바우처) 예술 분야 창업자가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구매 가공, 시각화, 인공지능 등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 예술과기술융합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21.10.1~13) 빅데이터 이용시 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 및 필요데이터 구매와 제공을 1순위,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

- ③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공공데이터 (인구, 지리정보(GIS), 교통, 기상 등) 및 민간데이터(카드결제, 유동인구, SNS 등) 의 수집과 구매를 통한 신규 융·복합 데이터 지속 생산 및 개방

2-2.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확대

□ 청년 예술가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확대 및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당사자 중심 사업 운영

- (지원 규모 확대 및 정당한 보상) 청년예술가 생애 첫지원 10억원²¹ → 30억원²², 본인 사례비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편성 가능
- (시너지 제고) 청년 예술가 대상 통합 교육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신설
- 단편적·분절적으로 운영되던 3개의 청년 예술가 대상 사업을 잇는 통합 교육 신설을 통해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네트워킹 제공

구분	진입(입문단계)	특화(국제교류)	차세대(심화단계)
지원사업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 국제교류지원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
사업내용	지원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의 안정적 현장 진입	청년예술가의 글로벌 예술 창작 작업 및 교류 기획 경험 제공	차세대 예술가의 창작 및 발표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공동교육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신설 지원금정산, 예술인권익보호, 저작권 등		
단계별 교육	퍼스널 브랜딩 등	해외 진출 워크숍 등	멘토링, 네트워킹 등

- (당사자 주도) 청년예술가의 목소리가 실제 사업과 연계되는 국민 참여예산제도시범 도입 * 3억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총 예산의 10%

□ 문화예술 분야 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

- (아르코문화예술전문가코스) 문화예술분야 인력 맞춤형 교육 콘텐츠 과정 개발 및 제공
 - 문화예술분야 경력단계별 콘텐츠 30개 내외 추가 개발
 - 학습자 및 기업 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 신규 개발 및 기능 구현
 - 문화예술교육협의체* 확대로 기관별 교육 콘텐츠 공유를 위한 정보 연동
- * (21년 5개 기관 협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술인 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전통예술진흥재단

- (무대예술전문교육) 무대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 제공을 위한 단계화 설계 및 참여자 확대 (5.9억원²¹ → 45억원²²)

구분	기존(2021)	개선(2022)
과정 설계	교육생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교육과정 기획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 *무대기술 분야 및 교육공학 전문가
교육 과정	진입 5년 내외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16개 과정)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 (50개 과정) *고급과정은 신기술 중심 Lab 형태로 운영
수료인원	140명 수료	1,000명 수료 예정
교육장소	개발원 내 집체 (경기도 고양시 위치)	지역극장 등 5개 권역별 방문 교육

- (교육통합플랫폼 운영) 청년예술가 · 무대예술교육 · 문화예술 전문가 (기획·경영·행정) 교육 사업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문화예술인재성장플랫폼 [문화예술, 내 일] 구축으로 집체 및 온라인, 상설 및 기간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사업 다각화로 2,926개 지원

구분	일경험·진입단계	숙련단계
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545명	공연예술 전문인력 181명
	무대기술 인턴십 200명 <신규>	공연예술단체 인력지원 2,000명 <신규>

- ①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545명)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근무 경험 축적의 기회 및 전문 교육 제공 및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54명)
- ② (공연예술전문인력 181명)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경영 및 무대 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원으로 공연예술인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화
- ③ (무대기술 인턴십 200명)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신규 인력양성 및 현장 진입을 위해, 교육훈련(1개월) 및 공연장 근무(7개월)을 통한 일 경험 지원
 - 무대기술 관련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를 통한 사업 참여 활성화
- ④ (공연예술단체 인력지원 2,000명, 일반회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예술 인력을 민간 공연예술단체에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도모

3-1. 취약계층 문화 향유 대상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포용적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 확대

- (지원인원 확대 197만 명²¹→263만 명²²) 코로나19로 늘어나게 된 취약 계층의 규모 고려 및 저소득층 청년(만19세~34세)의 문화향유 지원 보장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청년 전원(약 31만 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보장
 - * 초과발급제도를 활용, 해당연령대는 지역별 예산소진 후에도 발급 추진
 - 보편적·포용적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기반 마련
 - * 저소득층 외 국민 문화복지 확산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전 공감대 마련
- (서비스 및 시스템 개선으로 편의성 제고) ▲ 유관 부처 간 협업으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정보 누락으로 인한 미발급자 최소화 ▲ 누리집 개편 및 모바일 앱 고도화로 서비스 전달력 제고

□ 사회적 취약계층 사각지대까지 찾아가는 신나는예술여행

- (사업구조 세분화 13개 유형²¹→ 18개 유형²²) 이전에 혜택 받지 못했던 수요자 발굴 및 향유 기회 제공

	아동청소년	국민일반	특수
20 21	① 아동복지시설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③ 초중고교 ④ 장애인특수학교 ⑤ 장애인복지관	⑥ 노인복지관 ⑦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⑧ 임대아파트	⑨ 교정시설 ⑩ 군부대 ⑪ 하나원 ⑫ 병원 ⑬ 산업단지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특수	일반
20 22	① 아동양육시설 ② 초등학교 ③ 지역아동센터	④ 중·고등학교 ⑤ 대안학교 ⑥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⑦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⑧ 노인복지관 ⑨ 요양병원	⑩ 장애인 특수학교 ⑪ 장애인 복지관	⑫ 교정시설 (성인) ⑬ 군부대	⑭ 병원 ⑮ 종합사회복지관 ⑯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⑰ 임대아파트 ⑱ 산업단지

- (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정식 공연장이 아닌 일상 장소에서의 상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예술단체의 기획 역량 개발 워크숍 추진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가치 제고와 보존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아르크 공공예술 사업 고도화

- (목적성 구체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 활동 지원”
- (사회적 역할 강화) 예술의 사회적 기능 제고를 위한 주제심화형 사업 비중 확대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기획주제군으로 하는 주제심화형 사업의 예산확대 및 건수 확대(6억원, 2건²¹ → 12억원, 5건²²)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의결 슬로건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빈곤 기아 건강 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등 관련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제시

□ 세대 간 지혜 나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나눔

- (인생나눔교실) 인생의 경험과 인문적 지혜를 매개로 소통·공감·나눔·배려의 인문 정신 확산으로 개인 삶의 긍정적 변화와 성숙한 공동체 형성
 - 선배 세대(멘토) 및 새내기 세대(멘티) 모집을 조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여건 마련
 - * (기존) 매해 5~6월경 당해연도 사업 참여자 모집 → (개선) 전년도(21년) 11~12월 모집
 - 멘토 상담 기법, 세대간 소통법 등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 및 실시로 사업 참여자 간 만족도 제고

- (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 인종·세대·지역 등 문화 정체성 영역에서 문화적 표현(예술·생활양식·언어·미디어 등)으로까지 주제와 영역을 확장
 - (직관적 이해를 위한 사업명 변경) 무지개다리 → 문화다양성 확산
 - (사업영역 확장) 정체성 중심에서 문화예술, 생활 양식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작 및 지원, 문화다양성 주간과 민간 주도의 문화다양성 축제(MAMF) 연계 추진

* (문화다양성 축제 MAMF) 2005년 시작된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로 이주민 아리랑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의 줄임말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분야 후원 인식제고 및 총량 확대**

- (제도확충) 법정기부금 단체 지위 유지 및 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위한 적극적 활동 추진
 - (법인세법 개정) 법 제24조 제3항 법정기부금단체 목록에 예술위 추가
 - * 법인세법 개정('18.3월)에 따라 '23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되어 기부자 세제혜택 축소
 - (문화예술분야 세액공제 특례)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직접 공제 추진
- (인식확산) 후원인식 제고 성과 점검을 위한 인식도 조사 및 잠재후원자 대상 홍보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전략 차별화

구분	개인	기업	후원매개자
홍보 전략	클라우드 펀딩 기반 개인 취향에 따른 다양한 후원방법 안내	기업과 예술나무와 협업 마케팅 신규 후원콘텐츠 개발 제안	후원매개인증기관 홍보 협력으로 예술나무 인지도 제고

- (매개강화) 후원활성화를 다양한 인력 및 단체의 성장 조력 및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인센티브 확대
 - * (매개인력및단체성장프로그램) ▲아트너스(경력단절여성대상) ▲후연지기(지역예술기관 종사자 대상) ▲메디치클라스(기업 사회공헌분야 종사자 대상)

□ **예술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으로 예술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

- 예술기록원의 다양한 신규 컬렉션 구축 및 기록물 활용 콘텐츠 제공
 - 외부 전문가 집단 참여, 기록원 대표 컬렉션 확대(정리·기술, 등록, 보존, 검수 일괄 처리)
 - * 연극인 박정자 자료, 무용평론가 김영태(약 2만건), 작곡가 이만방(약2천건), 음악평론가 이상만(약 6백건), 김형주(약2만건), 작곡가 이강울(약7백건), 이은주 사진아카이브 컬렉션(약1만건) 등
 - 학예 및 연구 기능 강화로 전시 및 포럼 등 기록물 활용 콘텐츠 제공
 - * '22년 전시 2건, 포럼 2건 개최 목표
- 예술기록원 소장 기록물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예술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 실시 ('22. 6월~, 10회차 예정)
 - 수장고투어 시범 프로그램 ('22. 6월~, 매월 1~2회 예정)
 - 감상 프로그램 시범 운영 ('22. 하반기, 매월 1~2회 예정)
 - * 예술기록원 공영영상('79년~, 약 2,000여편) 사업결과물 및 소장 음원자료(LP, 유성기 음반, 릴테이프 등) 활용 예정

4-1. [현장참여] 예술계 소통 활성화로 기관 운영의 현장성 강화

□ 문화예술계 담론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공론장 마련

- (아르코웹진 복간) 문화예술정책 담론과 비평을 주도하는 매체 발간
 - 문화예술계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일방향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상시적 토론과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알트+탭 데이(가칭), Art+tab Day 신설) 상·하반기 총 2회 행사 개최
 - 키워드별 전문가 참여 컨퍼런스 및 토크 콘서트, 모더레이터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비공개 토론회, 네트워킹행사 등 예술가·비예술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예술 현장이 직접 참여하는 지원 사업 운영 개선점 도출

- (고객패널단 운영) 공모사업 개선점 도출을 위한 고객패널 모집 및 구성 후 그룹 FGI 시행, 인터뷰 결과를 VOC 리포트로 제작 및 배포
 - 공모사업 진행 과정 단계별 고객 접점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 도출 및 담당 부서에 전달, 제안 과제에 대한 이행 현황 모니터링 추진
- * (고객패널단) 공모방식으로 고객패널 20인 선발, 그룹당 5~6인이 참여하는 FGI 연 3회 시행

□ 지역과의 소통 체계 한국지역문화지원협회의 역할 재정립

- (기능 전환) 지원 사업 중심 논의구조에서 탈피하여 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 관련 논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의 기능 전환
 - 제도 정비를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으로 정보 교류 등
- (참여주체 다변화) 다층적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 지역별 예술인 간담회, 연중 상시 인터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지역현안을 파악하여 의제화 및 공론화 추진

* 지역간담회(9회) 개최, <예술회의99>운영 및 아르코 현장대토론회 지역세션 주관

4-2. [역량강화] 설립 50주년 (23년) 준비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

□ 리더십 교체기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 (8기 위원회 안착) 신임 8기 위원의 행정 지원 강화로 안정적 안착
 - 7기 위원회 성과 환류를 위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 백서 제작
 - 문화예술계 현안 및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소위원회 구성안 마련과 관련 규정 및 지침 보완
- (위원장 호선제 시행) 문예진흥법 개정 이후 첫 호선제 시행으로 기관장 선출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합리적 세부 절차 마련
 - * (예시) 위원장 직무 수행계획서 제출 및 공유 등

□ 예술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 (현장밀착형 연구) 예술생태계 세부분석 및 정책 환경 변화 사전 포착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신규 추진
 - * (현장연구 지원) (가칭)예술정책 개선을 위한 작은 연구 지원 : 기획/자유 총 10건
 - ** (소위원회 연계) 소위원회 제안 연구 추진 : 각 소위별 제안연구 1개, 총 5개
- (통계관리 강화) 문예연감, 연차보고서 체계 개선 등 통계관리 고도화
 - 사업 현황 및 전략 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전사 차원 통계관리 체계 구축

□ 우수인재 확보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채용 제도 정비

- 이전지역인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가점제도 개선
 - * 만점의 5%가 아닌 개별 획득점수의 5% 부여, 장애 경중에 따른 가점 차등 적용 등
- 유공자·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 * ▲장애인·국가유공자 각 1명씩 신규 채용 ▲여성가족부·문화예술후원센터와 협력하여, 후원매개전문가 전문인력 인턴십 운영(3명)

□ 50주년 준비 위원회 발족 및 운영

- (2023년 50주년 대비) 기관사 재정리, 50주년 계기 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념 행사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한 범 예술계 참여 준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IV. 현안 과제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 재원 확충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의해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재원
-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국민 문화복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지원
- 기금 지원으로 등단한 신진 예술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 예술가로 자리 잡는 등 창작역량강화, 지역예술기반 조성(문예회관 건립 등)에 기여

□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 2004년 5,272억 원에 달하던 적립금은 2003년 말 모금제도 폐지로 인한 기금 자체수입 감소,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 말 545억 원으로 감소
- 2016년부터 문체부 소관 타 기금(체육기금, 관광기금)의 전입, 2018년부터 일반회계 전입으로 기금 수지 흑자 전환, 2020년 말 1,67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단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입규모가 확정되어 중장기적 재원 구조가 취약한 상황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말	'17년 말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전망)	'22년 (전망)
수입(A)	215,345	196,717	286,270	366,965	348,070	349,408	361,927
지출(B)	228,458	229,496	241,223	274,095	332,164	357,419	351,568
수지차(A-B)	△13,113	△32,779	45,047	92,870	15,906	△8,011	10,359
기말 적립금	81,351	54,554	92,046	160,404	167,253	159,242	169,601

<문화예술진흥기금 타 재원 전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일반회계	-	-	500	500	210	204	300	'18년부터 전입
복권기금	372	372	821	1,056	1,223	1,641	1,739	'04년부터 전입
체육기금	500	500	500	1,000	1,000	970	970	'16년부터 전입
관광기금	500	500	500	500	500	-	-	'16년부터 전입
계	1,372	1,372	2,321	3,056	2,933	2,815	3,009	

* 복권기금 전입금은 전액 복권사업으로 지출(통합문화이용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 '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타격으로 관광기금 전입 0원

□ **재원 확충 방안**

- 법 개정 없이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한 문체부 소관 타 여유 기금 및 국고 출연을 지속하여 단기 고갈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안정화 재원 발굴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추진**

* '18.11월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로 복권·관광기금 출연 등 문예기금 재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기재위 법안 검토를 거쳤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됨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 국민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이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의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금 순자산도 매년 증가 추세로 문예기금으로 출연이 충분히 가능** (순자산 2014년 2조1,312억원→2018년 3조 41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체육진흥투표권 단년도 순조성액	11,835	12,922	14,017	15,582	15,293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비율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②항 3호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을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총액의 약 10% 출연 (출연비율은 협의에 따라 조정)

산재된 문화예술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 필요성과 국가의 역할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

- 문화예술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 예술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인식을 확보하고자 함

□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관련 자료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주요 예술기록물의 망실 증대
 - 민간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한 운영, 전문인력 부재로 안정적인 자료 수집·보존이 어려움 발생
 -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 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기록물의 망실이 증대되고 있음.
 - 빅데이터·인공지능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데이터의 가치와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관·시설별로 일관성 있는 지침 없이 진행되어 활용 한계 발생

□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개정(안)

- 문화예술기록물 수집과 보존 필요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내 명시 등
 - 산재된 예술자료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을 위하여, 예술기록물 수집과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된 조항을 신설하여, 예술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인식 확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안)]

제4조의3 (문화예술기록의 보존과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 5. 25., 2014. 1. 28.>

1.~10. 생략

11.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신설)

아르코미술관 및 아르코예술극장 시설 리모델링 비용 예산 확보

- 40년 이상 노후화되어 내용연수가 초과되었으며, 1회성의 부분 보수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전면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 필요
- 기상이변에 따른 누수·정전·부식·균열 등 각종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개보수 시급

□ 필요성

- 설립 후 약 4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아르코예술극장(1981년 준공), 아르코미술관(1979년 준공)의 지속적 누수 및 정전 사고 다수 발생
- 외벽, 옥상, 내부 시설 전반 노후에 따른 종합 개보수가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일회성 부분 보수가 반복되어 종합 공사를 통한 안전 확보가 시급

[주요 사례]

- ① '20.8월 태풍·폭우로 인한 미술관 및 극장 곳곳 누수 피해 발생
- ② '21.1월 아르코예술극장 한전공사로 인한 정전으로 공연 중단

□ 안전한 창작 공간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필요

[시설 개선 관련 타당성 조사 수행으로 예상 사업비 검토]

- ◇ 아르코미술관 리모델링 연구용역 진행 중 ('21. 12월 말 완료 예정)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시설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아르코 '21.11월 / 대학로 '20. 3월)

- 아르코미술관 및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개보수 소요 예산(안)

구분	아르코미술관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소요 예산(안)	※ 현재 정확한비용 추산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중이며, 수백억대 예산 필요 추산	리모델링 설계비 20억 +공사비 486억	리모델링 설계비 16억 +공사비 260억
합계	- (연구 용역 진행 중)	506억	276억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1973년 개관 → 2017. 10월부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2021. 9월 공식 재개관) 리모델링 사업비 658억원

1 연혁 ·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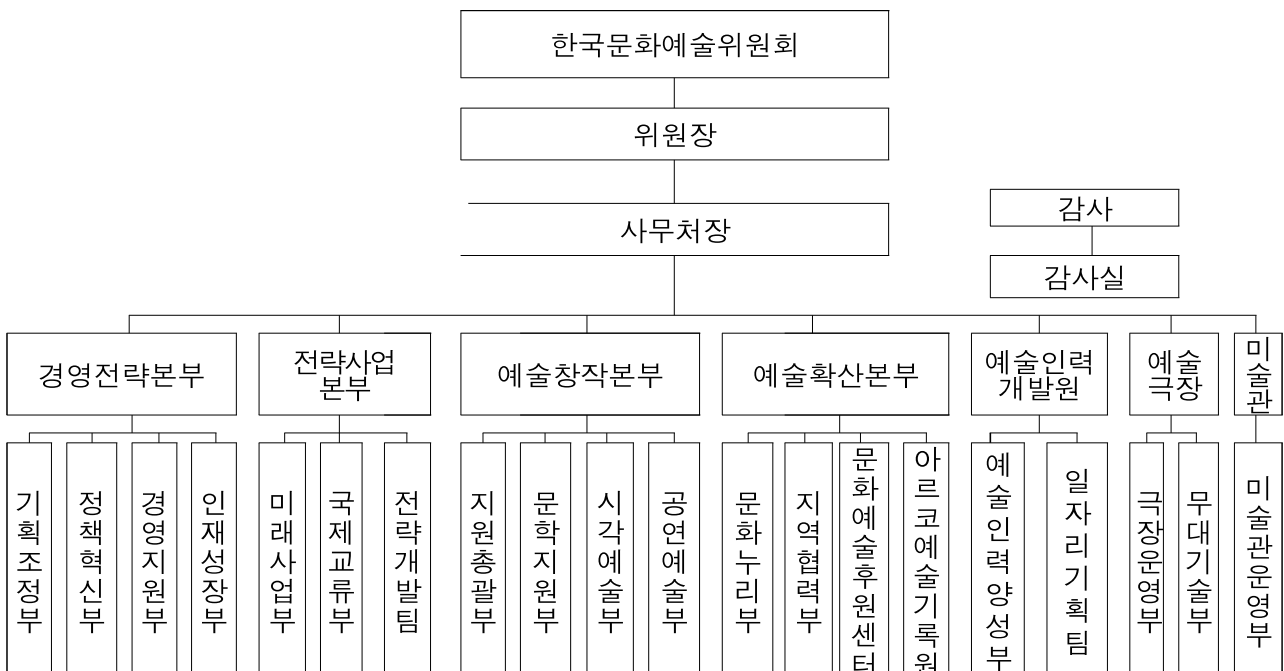
□ 연 혁

- 1972.08.14.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제2337호)
- 1973.10.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 1979.05.21. 미술회관 개관(현 아르코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
- 1981.04.01. 문예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극장)
- 1992.05.27.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2005.01.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제7415호)
- 2005.08.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인 설립(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해산)
- 2007.04.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08.09.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 2010.02.10. 아르코예술극장 분리 후 한국공연예술센터 출범
- 2010.03.12. 아르코예술정보관 분리 후 국립예술자료원 출범
- 2010.04.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이전 (구로구 새말로 120)
- 2010.11.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회 출범
- 2012.12.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기 위원회 출범
- 2014.04.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이전 (나주시 빛가람로 640)
- 2014.05.29.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기관 통합
- 2015.02.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기 위원회 출범
- 2017.1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기 위원회 출범
- 2018.11.02. 제7대 박종관 위원장 취임
- 2019.01.31.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 변경
- 2020.05.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회 출범

□ 임 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정관 제2조(목적)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 그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2 조직현황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8부 2팀]



3

시설 현황

<p>본관 (나주혁신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4,003.23㎡ (지하 1층, 지상 3층) 		<p>예술가의집(대 학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634.71㎡ (지상 3층) •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p>아르코미술관(대 학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969.58㎡ (지하 1층, 지상 3층) • 전시실 2, 필룩스 스페이스룸, 아카이브실, 세미나실 		<p>인사미술공간(종로구 창덕궁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90.54㎡ (지하 1층, 지상 3층) • 전시장(지하,1~2층) 	
<p>아르코예술극장(대 학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365.44㎡ (지하 1층, 지상 3층) • 대극장(600석), 소극장(110석), 연습실 1, 스튜디오 1 		<p>대 학로예술극장(대 학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8,585.08㎡ (지하 4층, 지상 5층) • 대극장(504석), 소극장(132석), 연습실 2, 스튜디오 1, 리딩룸 4, 카페 등 	
<p>아르코예술기록원 (본원 서초동, 분원 대학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서초동 예술의전당 디자인 미술관 2, 3층, 연면적 2,756.84㎡ 		<p>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경기도 고양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4,876.43㎡ • 창조관 (지하 1층 지상 4층), 무대미술스튜디오 (2층), 실험무대(3층) 	
<p>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42.6㎡ (지상1층) • 트랜스패런트 홀, 히스토리컬 홀, 실린더홀 등 3개 전시장 		<p>(자회사) 뉴서울 골프장(경기도 광주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75,380m2(36홀) • 클럽하우스 지하 1층, 지상 3층 외 21동 	

4 인원현황






*21.12.30 기준

구 분	계	임원	소계	정규직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정원	267	2	265	152	113
현원	266	2	264	151	113

5 위원회 구성

□ 위원현황 : 12명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11명)

이름(생년)	주요 경력	임 기
 박종관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객원교수(現) (사)예술공장두레 상임연출('89~現)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現) 문체부 문화비전2030 [새 문화정책] 준비단 위원('17~'18)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15~'18), 충북문화재단 이사('11~'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05~'08) 	'18.11.2.~ '21.11.1
 박경주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주)샐러드 대표 홍익대학교 순수미술(판화) 졸업 대우한의원 교양학부 객원교수 독일 HBK Braunschweig대학원 순수예술 전공 	'20.5.6~ '22.5.5
 유은선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원 강사 서울대학교 국악작곡 졸업 (재)세종문화회관 국악관현악단 (재)국악방송 방송본부 본부장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한국음악학) 박사 수료 	'20.5.6~ '22.5.5
 이시백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가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20.5.6~ '22.5.5
 이원재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문화비축기지 사업추진단장 문체부 새문화정책 준비단 위원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도개선위원장 	'20.5.6~ '22.5.5
 이진희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장애여성공감 대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여가부 권익증진분과 정책자문위원 경향신문 NGO발언대 필진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소장 	'20.5.6~ '22.5.5
 장인주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10) 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이사('10~'11/'13~'16)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이사('15~'18)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20) 	'21.2.21.~ '24.2.20.

이름(생년)	주요 경력	임 기
 전고필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 광주대학교 관광통역학과(문학사) 졸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연구 자문위원 · 문체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위원 · (재)지역문화진흥원 이사 	'20.5.6~ '22.5.5
 정유란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아이콘 대표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 졸업 ·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 ·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 사무국장 	'20.5.6~ '22.5.5
 정정숙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03~'15)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전공 대학원 겸임교수('13~'14) ·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17~'20) ·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 	'21.2.21.~ '24.2.20.
 정종열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대학교 겸임교수('03~'07) · 21세기악회 회장('14~'17) · (사)한국작곡가협회 사무총장 및 부이사장('17~'19) · 연세대학교 교수('08~) 	'21.2.21.~ '24.2.20.
 홍태림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평 웹진 '크리틱-칼' 발행인 ·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외부위원 · 문체부 미술분야 중장기 계획 자문위원 ·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20.5.6~ '22.5.5

□ 소위원회 구성현황 : 3개 상설 소위원회 및 2개 실무단(TF) 운영

소위명	주요 논의사항 및 참여위원
현장소통 소위원회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장르 분야 또는 현장이슈에 대해 현장소통 및 공론화 · 필요시 장르분과, 공론화 분과(토론회, 포럼) 등 실시
	내부(5) 홍태림, 이시백, 유은선, 박경주, 정종열 외부(9) 김대현, 김선영, 김근, 김재훈, 신민준, 이건명, 이일록, 박연정, 이소영
정책혁신 소위원회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현안, 중장기 대응, 사업운영개선 등 위원회 정책 논의
	내부(6)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장인주, 정종열 외부(5)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성평등 실태조사 연구 활동 · 성평등 예술지원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등
	내부(2) 이진희, 정정숙 외부(4) 김영옥, 송원, 이산, 홍교훈
코로나19 대응 TF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긴급지원에 대한 검토와 지원 방향 수립 · 코로나19 예술포럼 연계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정책제안
	내부(3) 정유란, 이원재, 유은선 사무처(5)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권용민 책임연구원, 조강주 책임연구원, 나혜영 책임연구원, 한하경 주임연구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과 회복을 위한 TF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과 예술행정인 간 신뢰 회복과 예술생태계의 민주적 복원에 대한 활동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예술위원회의 노력과 성과 대외 공유 체계 마련
	내부(4) 정정숙, 이원재, 정유란, 홍태림 사무처(3)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김성범 과장

□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확정(B)	증 감	
		계획(A)	수정		(B-A)	%
총 계	447,952	523,902	539,633	523,987	85	0.02
자체수입	4,556	5,675	5,941	61,059	679	12.0
○ 관유물대여료	468	1,175	1,175	1,175	1,175	-
▪ 건물대여료	468	1,175	1,175	1,175	1,175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88	4,500	4,766	5,179	5,179	679
▪ 기타민간이자수입 (융자사업이자수입)	-	-	266	679	679	679
▪ 기타재산이자수입 (적립금이자수입)	4,088	4,500	4,500	4,50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5,074	36,645	36,645	42,567	5,992	16.2
▪ 민간출연금(기부금)	18,258	26,167	26,167	26,167	-	-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금집행잔액반납금)	16,816	10,478	10,478	16,400	5,922	56.5
○ 입장료수입	5,227	6,244	6,244	6,244	-	-
▪ 입장료수입 (골프장운영이익금 등)	5,227	6,244	6,244	6,244	-	-
○ 잡수입	9,889	17,649	17,649	1,254	△ 16,395	△ 68.6
▪ 기타잡수입 (간행물판매수입금 등)	1,219	1,254	1,254	1,254	-	-
▪ 기타영업외잡수입 (경륜경정수익금)	8,670	16,395	16,395	-	△ 16,395	순감
○ 융자원금회수	-	-	1,405	4,640	4,640	순증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	1,405	4,640	4,640	순증
정부내부수입	293,324	267,464	281,524	300,868	33,404	12.5
○ 전입금	293,324	267,464	281,524	300,868	33,404	12.5
▪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0,370	20,370	30,000	9,630	47.3
▪ 기금전입금	272,324	247,094	261,154	270,868	23,774	9.6
- 복권기금전입금	122,324	150,094	164,154	173,868	23,774	15.8
- 체육기금전입금	100,000	97,000	97,000	97,000	-	-
- 관광기금전입금	50,000	-	-	-	-	-
여유자금회수	99,882	190,225	190,225	162,060	△ 28,165	△ 14.8
○ 정부예금회수	99,882	190,225	190,225	162,060	△ 28,165	△ 14.8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9,882	190,225	190,225	-	△ 190,225	순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162,060	16,060	순증

□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계획(B)	증 감	
		계획(A)	수정		(B-A)	%
총 계	447,952	523,902	539,633	523,987	85	0.02
사업비 소계	301,014	301,494	328,054	365,594	64,100	21.3
○ 예술창작역량강화	93,288	93,858	106,358	106,702	12,844	13.7
▪ 예술창작지원	59,816	48,186	60,686	53,414	5,228	10.8
▪ 예술인력육성	14,472	21,672	21,672	29,388	7,716	35.6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9,000	24,000	24,000	23,000	△1,000	△4.2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	-	-	900	900	순증
○ 지역문화예술진흥	20,314	18,819	18,819	10,947	△7,872	△41.8
▪ 지역문화예술지원	9,168	9,957	9,957	3,470	△6,487	△65.2
▪ 예술의관광자원화	11,146	8,862	8,862	7,477	△1,385	△15.6
○ 예술향유기회확대	187,412	188,817	202,877	247,945	59,128	31.3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0,695	21,694	21,694	21,671	△23	△0.1
▪ 문화예술향유지원	166,717	167,123	181,183	226,274	59,151	35.4
운영비 소계	146,938	222,488	211,579	158,393	△64,095	△40.5
○ 기금운영비	21,145	21,565	21,565	22,374	809	3.8
▪ 인건비	11,977	12,124	12,124	12,332	208	1.7
▪ 기관운영비	7,604	7,223	7,223	8,065	842	11.7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502	556	556	553	△3	△0.5
▪ 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1,062	1,662	1,662	1,424	△238	△14.3
○ 복권기금반환금	10,005	7,800	7,800	3,000	△4,800	△61.5
▪ 복권기금전출(반환금)	10,005	7,800	7,800	3,000	△4,800	△61.5
○ 여유자금운용	115,788	193,043	182,214	133,019	△60,024	△31.1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15,788	193,043	182,214	-	△193,043	순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	-	133,019	133,019	순증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3대 전략목표 - 7대 전략과제 - 20개 세부과제

I.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예술의 지평 확대

- ①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 ②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 ③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 ①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 ②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 ③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

- ①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 ②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다각화

II. 문화예술 가치의 확산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①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② 문화예술 후원 매개 활동 활성화
- ③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
- ④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 예술 가치 보존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① 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 ②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핵심 가치

도전과 변화

담대한 시도와
창의적 방식으로
능동적 변화를 추구한다

공감과 협력

예술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공공책임무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다